

(담 당 : 총선거획팀 김새봄 PD /)

2020. 1. 21 .

문서번호 2020-13

수신 노동당

참조

발신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제목 21대 총선 국회개혁 관련 공통 질의서

결재		지시	
접수	일시/시간	결재	
	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당자		

귀 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점에 초점을 맞춰 국회개혁과 관련된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에 공통 질의를 드려 보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는 **1월 31일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뉴스타파 김새봄 피디 springns@newstapa.org)

●답변은 예, 아니오 공란에 체크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타란에 적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2만 2천 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건수늘리기용 법안이 늘어나면서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도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입법공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적정 수의 내실있는 법안 발의가 이뤄지도록 당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2. 발의법안 건수가 늘어나면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계류되는 법안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 자동 상정은 상임위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도 법안이 자동 상정되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3. 20대 국회는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법안심사 소위 월 2회 정례화와 폐회 중 상임위 개최를 명시하였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원 또는 정당에 벌칙(수당 등에 대한 페널티)을 강제하는 방식의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4. 국회는 상임위와 소위에서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 관행상 합의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하더라도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숙의과정을 거치되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다수결에 의한 표결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5.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 권한으로 인해 법안처리 지연과 '월관' 등 수 십년 째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바꾸는데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6.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불법행위는 국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윤리특위를 통해 다루도록 돼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결정한 적이 없어 동료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록 공개 또는 독립적인 윤리심사위 구성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7. 영국에서와 같이 외부 독립기구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 보수를 결정하고 의원 수당과 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기타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